

# INWEPF 제2차 운영위원회의 및 논에서의 물과 환경 국제심포지엄 개최

조진훈

(jjhjo@karico.co.kr)

INWEPF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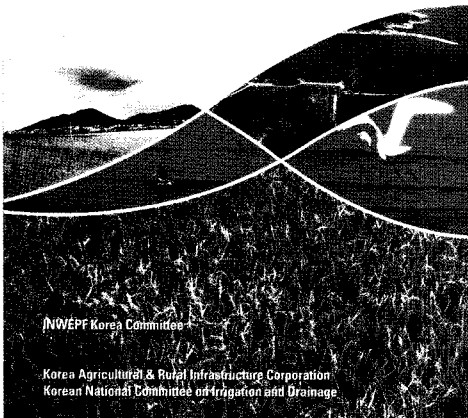
농림부가 주관하고 우리위원회 및 농업기반공사가 후원하는 INWEPF(International Network for Water and Ecosystem in Paddy Fields) 제2차 운영위원회의 및 심포지엄이 2005. 11.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INWEPF(논농업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네트워크)의 설립 배경, 목적 및 목표, 조직, 그리고 제2차 운영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nternational Network  
for Water and Ecosystem in Paddy Fields

## INWEPF 2nd Steering Meeting and Symposium on the Water and Environment in Paddy Fields

November 2-4, 2005  
Seoul, Korea



## INWEPF 설립 배경

논 농업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네트워크 (INWEPF: International Network for Water and Ecosystem in Paddy Fields)는 2004년 11월 2일 일본 도쿄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식 출범하였다. INWEPF 설립에 참여한 국가 및 단체는 한국, 일본,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일란드, 베트남 등 논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13개국과 FAO, ICID, WB, ADB, APO, INPIM, IRRI, PAWEES, IWMI, MRC 등 10개 국제기구 및 NIRE 등 일본의 15개 국내기구였다.

INWEPF는 2003년 3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세계물포럼(WWF3)의 농업장관 각료회에서 도출되었던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가난해소”, “지속가능한 물사용” 및 “상호협력”의 세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설립 권고안에 따라 설립되었다.

## INWEPF 설립 목적

쌀은 아시아 몬순기후 지역 국가는 물론 세계 인구의 59%가 주식으로 삼고 있으며, 전 세계 쌀 재배 면적의 약 90%가 아시아에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서의 쌀 농사 경험을 공유하고 생산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장차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가난해소라는 세계 농업 분야의 새천년 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인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담수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세계 농업분야의 전문가들은 논에서의 지속 가능한 물 사용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와 가난 해소 (Food Security and Poverty Alleviation)』, 『지속가능한 물 사용 (Sustainable Water Use)』 및 『공동협력 (Partnership)』 등 세 가지 기본과제에 대해 INWEPF 회원국 사이의 정보를 교환하고 종합하여 국제사회의 물 사용 지표 개발 논의와 농업협상에서 공동 대처하며, INWEPF 회원국 사이의 공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논농업이 환경과 국토를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으로, 친환경 산업이라는 논리를 개발하고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목표 및 기본 방향

◆ 아시아 몬순지역 논에서의 물관리와 경작 경험을 활용하여 관련연구와 INWEPF 회원국 사이의 정보교환을 증진시키고, 그 결과를 국제토론장에 유리하게 전달함으로써 설립목적의 세 가지 구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 식량안보와 물문제 해결은 물론, 환경적으

로 건전한 방법 안에서 개발 도상국에서의 가난과 기아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효율성과 지속성을 가진 적절한 물관리 및 영농법을 연구하여 적용하고 전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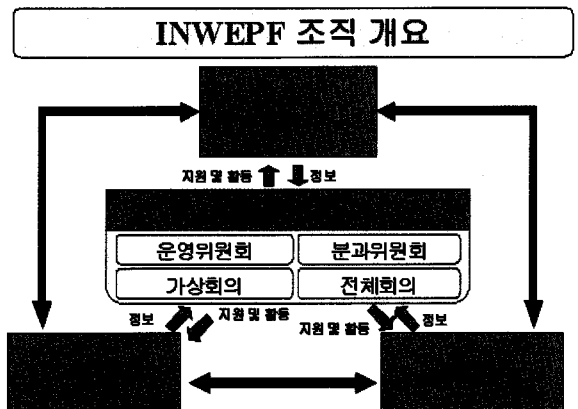
◆ 쌀 생산자와 농촌사회에서 환경적 우려를 완화시키는 수질관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성의 유지, 농업/농촌사회에서 물사용의 다원적 역할과 가치의 극대화, 혁신적인 벼 품종 개발 및 적절한 관리기술과 수단을 전파한다.

◆ 위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 정책/수행 및 국제협력의 세 분야 사이의 결속을 증진시키는 장을 제공하며, INWEPF 활동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정부로부터 풀뿌리 차원까지 모든 활동의 종합된 공동의견을 생산한다.

◆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강력한 메시지가 제4차 세계 물 포럼(WWF4)이나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의 후속조치와 같은 국제 물관련 회의 대안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한다.

## 조직 구성 및 활동

INWEPF의 조직 개요는 다음과 같다



활동분야로는 설립취지의 연구, 정책/활동, 국제협력의 세 가지 과제에 대한 인식과, 아시아 몬순 지역에서의 농업용수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세 분야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인다.

## INWEPF 가상 회의

INWEPF에 참여하는 한 방법으로 가상회의(VM : Virtual Meeting)를 개최하여 추천된 주재자가 INWEPF에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세부 주제의 토론 우선순위 결정 및 운영위원회의 활동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한다.

가상회의 진행은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활동방법은 전자메일을 하거나 또는 ICID의 아시아지역분과위(ARWG)을 활용 한다.

가상회의 참가자는 30인 이내로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각각 2주 정도 진행되며, 우선 순위는 운영위원회 활동전략회의에서 결정된다.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전자회의(e-conference) 형식으로 공식토론을 거쳐 결과를 요약한다.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INWEPF 활동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 결정하는 의결기구로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농업 관련 국제회의 및 포럼에 제출할 제안서를 준비하는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1차 운영위원회의는 2004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제1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아시아 몬순기후대의 쌀농업 국가들이 쌀농사 시스템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공통된 관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를 정리하여 세계물포럼 등과 같은 물관련 국제회의에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INWEPF의 규정을 작성하고 의결하였으며, 향후 1년간 수행할 액션플랜의 내용을 논의·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액션플랜에 의거하여 지난 1년간 일본이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2차 운영위원회의를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 제2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 개최 의의

제2차 운영위원회의는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개최 목적은 논농업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유연한 국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식량안보와 가난해소, 지속가능한 물사용 및 공동협력에 이바지한다는 INWEPF의 설립목적에 적극 동참하고, 회원국 간의 정보 및 기술교환과 같은 연대활동을 통해 세계 물포럼 등 농업관련 국제포럼에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공성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INWEPF 운영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일본과 함께 아시아 논농업지역 중심국가로서의 리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논농업의 친환경적인 다원적 기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다.

2) 물을 많이 소비하는 우리나라의 논농업과는 다른 형태의 영농법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논

농업은 수질악화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세계 농업협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메리카나 유럽 국가들에게 논농업이 가지는 큰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적 기능을 이해시키는 기회를 갖는다.

3) 또한, 2006년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제4차 세계 물포럼 등 농업관련 국제회의와 포럼에 제출할 제안서를 마련하여 전달함으로써 향후 농업관련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WEPF는 각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국제네트워크로서 NGO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세계물포럼 등과 약간 다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본 회의는 농림부(농촌정책국)가 주관하고 농업기반공사(KARICO)와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가 후원하여 추진되는 회의로서 회의결과에 따라 농업용수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회의추진 개요

본 회의는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롯데호텔월드(잠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회의가 끝난 다음 날(11월 4일)에는 청주농업용수개발사업 현장, 문의 민속마을 및 대청댐을 둘러보는 현장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모두 14개국이며, FAO와 ADB등 8개 국제기구에서 대표가 참석할 것이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모두 약 50여

명의 외국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 회의에 대표를 보내기로 한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 국가(13개국) :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집트

- 국제기구(8기구) : FAO, ICID, ADB, INPIM, IWMI, JIID, JCID, MRC

회의를 주관하는 농림부에서는 회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다양한 국내의 농업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논농업 관련학과 교수들을 포함하여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분야 연구소, 농협 및 KOICA 등에 참가를 요청하였다.

###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번 INWEPF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개최와 더불어 2가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다. 세션 I은 “논의 다면적 기능과 물 환경(Multi-functionality and Environment)”의 주제에 대하여 6명의 각국 전문가들이 발표할 예정이며, 세션 II에서는 “통합 및 참여형 물 관리(Integrated and Participatory Water Management)”라는 주제로 6명이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참가한 14개국의 대표들이 각국의 논농업 및 용수사용 등에 대하여 Country Report를 발표할 예정이다.